

광주·전남 '초광역 메가시티' 만든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8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발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대도약을 위한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광주와 전남도가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설립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그동안 첨예한 입장 차이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국가 주도 특별법 제정과 이전지역 주민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등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나주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도 매년 50억 원씩 출연,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데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와 전남도는 28일 전남도청에서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11개 신규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신규 과제로는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서남권 원자력대학원 건립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광주·전남(광주·화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광주·전남 고속도로 건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유지 ▲광주+전남 연계 에너지신산업 협력 확대 ▲탄소중립-에너지대전환 기후동맹 선언 ▲광주·전남 우리쌀 소비촉진 협력 ▲관광 브랜드 사업 상호 협력 등 11건이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는 반도체 이슈가 떠오른 상황에서 추진한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에 1000만㎡ 규모로 조성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광주 디지털헬스케어'와 '전남 면역치료'로 미래산업을 견인할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서남권원자력대학원 건립도 양측이 실무특별전담팀(TF)을 구성, 관련 용역 등을 협의해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광주·전남, 전북까지 아우르는 공동 사업을 발굴, 추진할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도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나주·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광주를 중

반도체 특화단지·광역철도·전남 의과대 건립 등 협력 나주시, 내년부터 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원 출연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 주도 특별법 제정 촉구키로

심오한 순환교통망 구축, 광주~완도, 광주~고흥, 광주~영암~진도 간 고속도로 구축으로 시·도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국립 의과대학을 전남에 조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유치 활동을 펼치고 광주·전남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및 직류산업 육성, 광주·전남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에도 협력키로 했다. 광주·전남 쌀 소비촉진, 관광인프라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에도 머리를 맞댄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화순 동북댐 주변 정비사업 등 지금까지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혁신도시 발전기금의 경우 나주시가 내년부터 50억 원씩 매년 출연키로 했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발전기금은 혁신도시가 출범한 2006년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방세를 재원으로 조성하기로 광주시장·전남지사·나주시장 간 합의가 이뤄졌었다. 하지만, 권여들인 지방세보다 혁신도시 조성비용이 훨씬 더 많다는 나주시의 이의 제기 등으로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산업연구원은 '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발전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나주시는 2014년~2019년 6년 간 혁신도시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1641억원, 권여들인 지방세를 737억원으로 집계해 결국 904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나주시는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손실에도 불구하고 매년 50억원을 기금으로 내놓고 공공기관

들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발생한 성과를 주변 시·군 등으로 확산하는 데 쓰기로 했다. 광주시도 매년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지방세 전부를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집하지 않는 등 양보하면서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문제의 실마리가 풀렸다.

광주 군공항 이전도 이전 지역을 위한 선 지원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전남도 입장에 따라 안전에 상정되지 못했던 이전 회의와 달리, 양측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양측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 주도 특별법 제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군 공항의 면적 조정 및 완충지역 확대, 훈련기능 조정도 국방부에 공동으로 촉구한다. 진행이 멈췄던 화순 동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양 시·도가 협력키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공동운영체, 상생의 핵심은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같은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광주·전남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6년간 표류했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문제가 이번 상생발전위원회를 계기로 큰 진전을 이뤄냈다"며 "광주·전남의 단합된 힘과 노력으로 '위대한 광주·전남'을 다시 세우고 역사적인 대도약과 공동번영을 함께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시,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3급 3명 등 227명 승진

광주시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민선 8기 첫 인사로 공모연수, 명예퇴직 등에 따른 결원 직위에 3급 3명, 4급 19명, 5급 23명, 6급 36명, 7급 96명, 8급 50명 등 총 227명을 승진 의결하고 8월 1일자 4급 이상 전보를 발표했다.

<인사 명단 20면>

3급 승진자는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직무대리 등이다.

또 국장급 전보인사로 시의회의 조직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주목받은 신활력추진본부장으로 추진력과 소통능력이 좋은 김준영 부이사관을 전진

배치하고, 자치구 경제조정 등 과제를 풀어야 할 자치행정국장에는 경험이 풍부한 김석용 부이사관을, 도시공간국장에는 도시·교통 전문 김종호 부이사관을 배치했다.

5급 이하는 기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존중하면서도, 성과 우수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연공서열을 뛰어넘는 인사를 병행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8월1일자 조직개편안 통과에 이어 국과장급 전보까지 이뤄져 민선 8기 현안을 풀어가갈 진용이 갖춰졌다"며 "8월 16일까지 5급 이하 전보인사를 끝으로 정기인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3급 승진자 프로필

7급 공채 출신... 복지·문화·경제 역량 발휘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7급 공채 출신으로 복지, 문화, 경제 등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설립, 광주복지연구원 기능 조정,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등을 이끌었다. 리더십은 물론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온화한 성격으로, 직원들과도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58(담양) ▲고령사회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



미디어아트플랫폼 개관 등 성과 '문화통'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문화통으로, 지역 문화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미디어

아트플랫폼 개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유효기간 5년 연장 등의 성과를 냈다. 침착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자신이 맡은 업무는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해 높은 성과로 연결하는 게 장점이다. ▲57(영광) ▲문화도시정책관 ▲문화기반조성과장



영산강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환경 전문'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직무대리

환경 7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환경분야에서 전문관료로

서 입지를 쌓아왔다. 영산강 수질오염 총량관리,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을 책임졌다. 행정과 기술 실무를 접목한 깔끔한 업무처리 방식이 강점이며,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조직내 신망이 두둑하다. ▲57(고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국민의힘 광주시당, 자치구와 현안 논의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광주 주요 현안과 관련, 광주시 및 5개 구청과 간담회를 갖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은 28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강 시장과 지난 18일 개최한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 협의회'와 관련해 후속 조치 및 추진 방향 등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과 강 시장은 다음 주 중으로 국민의힘 광주시당-광주시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최대 공약인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모빌리티 관련 산업, 대형 복합쇼핑몰 등 중앙정부 지원 및 국비 확보 등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5개 구청과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9일 김이강 서구청장과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차례로 예방하고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다. /최원일 기자 cki@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